국내 인터넷 상의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련 웹사이트의 평가

Evaluation of Internet Web-sites Providing Infant Health Related Information for Daycare Staffs

김지수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Ji-Soo Kim(chprogram@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에 관련한 웹사이트를 평가함으로서, 영유아 건강정보가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총87개의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고, 기존의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평가한 결과, 32점 만점에 11~29점의 분포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정확성과 권위성이 가장 낮았고 내용성, 지속성 등도 약 절반가량의 사이트에서만 충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영유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전문가가 없이 영유아를 집단으로 돌보는 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건강정보를 이용하기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건강정보제공이 시급하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웹사이트 | 영유아 | 건강관리 | 건강정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web-sites related to infant health at day-care centers. A total of 87 web-sites were ultimately selected through Internet search engines, and educare sites. The basis of assessment in which standards and items were amended for the assessment of health information in previously used, and purpose, content, pertinence, accuracy, confidence, utility, authority, interactivity and continuance was assessed. Though the total score were 32 point, mean score was relatively low, 20.39 point. The score of accuracy and authority was relatively low while that of confidence and interactivity was high.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pecific infant health related web-site with reliability guarante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web-site providing accurate health information for infant at day-care centers.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as a data for developing reliable web-site related infant health.

■ keyword : | Web-sites | Infant | Health | Health Information |

* 본 연구는 2008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91013-006
접수일자 : 2009년 10월 13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03일
교신저자 : 김지수, e-mail : chprogram@naver.com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교육 등의 이유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게 되는 경향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의 수는 33,499개소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서 1,135,502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1]. 이와 같이 국내에서 보육시설은 영유아에게 가정을 제외한 양육환경의 주된 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아동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에 노출되고 있다.

영유아기는 생애주기의 출발점으로 이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국민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주로 이용하는 보육에 있어 건강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2]. 보육내용을 구성할 때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적인 내용으로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국내 보육시설 종사자 중 0.27%만이 간호사[1]이고 대다수의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건강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약 70%의 보육교사는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연수 경험이 없으며 건강지식을 얻는 정보원도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사실 상 영유아 건강관리에 직접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건강지식 수준이 상식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보육교사 스스로도 영유아를 돌보는 지식수준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영유아 질병과 관련된 지식 보급에 문제가 있음을 단편으로 나타내고 있다[4]. 또한 보육교사 교과과정 상에서도 영유아건강관리를 위한 과목이 2과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강관리 지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5].

따라서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다양한 건강정보들을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인터넷은 접근이 용이하여 건강정보전달에 있어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최근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터넷이 정보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7].

최근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책임이 불분명한 건강 상담 등의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8][9].

보육교사들이 접근해서 이용하기 쉬운 보육정보센터로 검색되는 51개의 웹사이트에서도 보육시설 영유아를 돌보기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제공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검증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들도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제공된 건강정보가 전문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그럼에도 건강정보 웹사이트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유아의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직접 전문가를 접촉하지 않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함으로 이러한 사이트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건강정보나 책임이 불분명한 건강 상담 등은 오히려 건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에게 혼선과 부적절한 건강관리 행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10].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평가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를 평가 분석한 연구[11], 인터넷 금연정보 사이트를 평가한 연구[12],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연구[13], 육아정보 사이트 평가[14], 산후관리 웹사이트 평가[15], 응급처치관련 웹사이트 평가[16]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건강정보 웹사이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보육교사가 이용하게 되는 영유아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평가함으로서,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을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영유아 보육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평가 도구

웹사이트 평가도구는 정영철과 박현애가 개발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평가도구[17]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보건의료 사이트 평가 기준인 목적성(4문항), 적절성(8문항), 정확성(4문항), 신뢰성(2문항), 용이성(5문항), 권위성(3문항), 환류성(2문항), 지속성(4문항) 등의 8개 항목, 총 32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도구 개발 당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5문항을 제외하고 나서, 본 연구목적에 맞게 목적성에서 내용의 범위와 깊이, 내용의 일관성을 내용성으로 따로 분류하고 7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또한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 아니오의 이분형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하여 구성된 문항은 목적성 2문항, 내용성 7문항, 적절성 7문항, 정확성 4문항, 신뢰성 2문항, 용이성 3문항, 권위성 2문항, 환류성 2문항, 지속성 3문항으로 총 32문항이었으며 관련 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고 최종 확정하였다. 평가에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총 점수는 32점 만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Kuder-Richardson20= 0.886이었다.

1.1. 목적성(명확성)

목적성은 사이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목적에 대한 언급 여부, 대상에 대한 명시 등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7]. 각 항목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하고 1점을 부여하였다.

1.2. 내용성

내용성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는 영유아 건강정보의 범위와 깊이, 그리고 내용의 질 등 3항목으로 되어 있다. 내용의 범위에서는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강 및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평가하였고, 내용의 깊이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제 하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각 1점을 부여하였다. 내용의 질은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정보가 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익한 정보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타당할 경우 각 1점을 부여하였다.

1.3. 적절성

적절성은 사이트가 추구하는 바를 위하여 웹사이트의 구성 및 내용 등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트명의 함축적 의미, 목적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대상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주제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대상에 대한 표현 방법의 적절성, 내부와 외부 링크 등의 적절성에 대한 7가지 항목으로 되어있다[17]. 각 항목에 대해 적절성을 갖추고 있으면 각 1점을 부여하였다.

1.4. 정확성

정확성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료에 대한 내용, 출처 표기, 책임소재 여부, 검증여부 등의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17], 각 항목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1.5. 신뢰성

사이트의 신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책임기관(자)의 기재여부 및 연락처의 표기 여부 등 2가지 항목이 평가되었다.

1.6. 용이성

용이성은 사용자가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있어 편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 페이지의 위치 표기여부, 내용에 대한 소개 여부, 검색기능 여부 등의 3가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7]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1.7. 권위성

권위성은 저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표기여부, 연락처 표기 여부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환류성

환류성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의 정보교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17]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전여부와 사용자 의견에 대한 처리 여부의 2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1.9. 지속성

지속성은 사이트의 내용 등에 관한 지속적인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 링크, 처음 제작일, 최종 갱신일 등[17]의 3항목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2. 평가 대상

평가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즉 네이버, 야후, 엠파스, 심마니, 라이코스 코리아, 다음, hanmir 검색엔진 사이트에 '보육'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하였다. 이렇게 해서 웹 사이트로는 576건이 검색되었고 웹 페이지는 28,600,000건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웹 사이트 중에서 창업보육센터로 검색되어 보육과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를 제외해서 231개가 선정되었고, 웹 페이지에서는 중복된 경우와 보육이라는 단어만 들어가서 검색된 경우(구인 정보 또는 소식지)를 제외해서 345개가 최종 검색되어 결과적으로 576건이 일차적으로 선정되었다. 이중에서 다시 중복되는 웹사이트를 제외하고, 접속이 잘 되지 않는 사이트, 그리고 매우 일부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평가하기 어려운 사이트, 또 게시판이나 문서만 들어있는 웹사이트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여성정보, 육아 정보 사이트 등에서 보육시설 영유아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만 다시 정리하였다. 또 다른 검색 경로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였는데, 대전, 충남, 인천, 경기북부, 강남, 포항시, 시흥시, 평택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영유아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자료가 미약해서 활용하기 어려웠으므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나 이에 대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는 사이트만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최종 87개가 평가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영유아 건강정보를 제공 사이트는 보육정보센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 단체나 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표 1].

표 1. 영유아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 평가 대상(N=87)

항목	n	(%)
보육정보센터	43	(49.4)
보건소	4	(4.6)
놀이방, 어린이집	5	(5.7)
자치단체(시 또는 구)	6	(6.9)
건강관련국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5	(5.7)
의료, 제약, 분유회사	7	(8.0)
포털사이트	1	(1.1)
의료·보건 단체	2	(2.3)
보육시설 연합회, 보육교사연합회	3	(3.4)
사단법인, 재단, 연구소	11	(12.6)
총	87	(100)

3. 평가 방법

사이트 평가는 2008년 9월과 10월 사이에 검색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평가 작업은 유아교육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1인과 아동건강 전공 교수 1인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본 평가조사에 앞서 각 항목의 평가 척도와 평가 방법에 대한 사전 훈련을 시행한 후 본 평가에 임하였다. 두 평가자 간의 평균치를 이용하지 않고 평가자 간의 불일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도구가 예, 아니오의 이분형 문항이

기 때문에 평균치의 환산은 사이트 평가 측정을 차별화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자의 의견 수렴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III.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사이트는 점수범위 0~32점 중, 11~29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은 20.39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각 항목의 문항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 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을 비교했을 때 정확성이 평균 0.24, 권위성이 0.35로 낮았으며, 내용성이 0.52, 지속성이 0.56으로 중간 점수 분포를 보였고, 적절성 0.70, 용이성 0.93, 목적성 0.95, 신뢰성과 환류성이 평균 0.97순으로 높았다[표 2][그림 1].

표 2. 영유아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 평가(N=87)

항목	점수범위	최소-최대	평균±표준편차
총점	0-32	11-29	20.39±4.88
목적성	0-2	0-2	1.61±0.77
내용성	0-7	0-7	3.68±2.40
적절성	0-7	1-7	4.89±1.64
정확성	0-4	0-4	0.97±1.03
신뢰성	0-2	0-2	1.94±0.32
용이성	0-3	2-3	2.80±0.40
권위성	0-2	0-2	0.69±0.63
환류성	0-2	0-2	1.95±0.26
지속성	0-3	0-3	1.69±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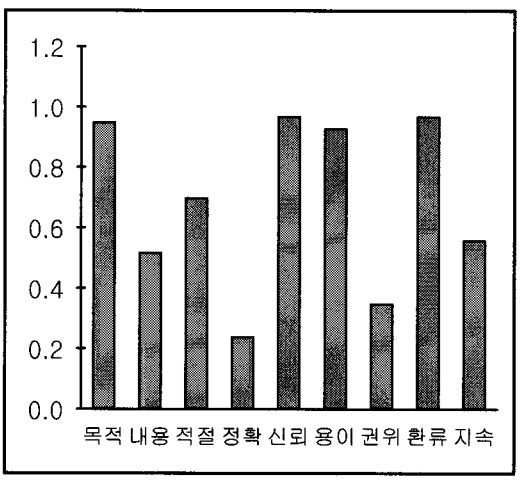

그림 1. 영유아 건강관련 사이트 항목별 평가 비교

1. 목적성

목적성은 최대 2점 중 평균 1.61을 나타냈는데 목적성 문항 중 목적은 평가대상 사이트의 96.6%, 대상은 93.1%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사이트는 사이트의 목적과 사용대상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목적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목적성	평가 기준	f(%)
목적	언급되어있다.	84(96.6)
내용	언급되어 있다.	81(93.1)

2. 내용성

내용성은 0-7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68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평가 대상 사이트의 과반수 정도만이 내용성을 충족하고 있었다. 내용성 문항 중에서는 그래픽이 적절히 사용된 사이트가 평가 대상 중 34.5%에 불과하였으며 영유아를 돌보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이트가 70.1%였다[표 4].

표 4. 내용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내용성	평가 기준	f(%)
내용의 범위	필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44(50.6)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6(52.9)
내용의 깊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40(46.0)
내용의 질	보기 쉽다.	47(54.0)
	최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2(59.8)
	그래픽이 적절히 사용되어 있다.	30(34.5)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61(70.1)

3. 적절성

적절성은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평균 4.89로 절반 이상은 적절성 항목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에서는 내부 링크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연결된 사이트가 12.6%에 불과하였으며, 표현방법이 대상자에게 적절하다고 평가된 곳이 87.4%였다[표 5].

표 5. 적절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적절성	평가 기준	f(%)
사이트 명	사이트 명이 적절하다.	75(86.2)
목적	내용이 사이트 목적과 부합한다.	71(81.6)
대상	내용이 대상에 적합하다.	69(79.3)
주제	내용이 다루는 주제에 적절하다.	72(82.8)
표현방법	표현방법이 대상에 적합하다.	76(87.4)
외부링크	링크자료원이 적절하다.	51(58.6)
내부링크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1(12.6)

4. 정확성

정확성은 0~4점의 분포 중 평균 0.9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확성 항목 중에서도 검증이 기술되어 있는 사이트는 2.3%에 그쳤으며 책임소재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사이트는 18.4%, 자료의 출처가 표시된 사이트는 26.4%에 불과하였다[표 6].

표 6. 정확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정확성	평가 기준	f(%)
내용의 정확성	내용이 정확하고 잘못 된 정보가 없다.	43(49.4)
출처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23(26.4)
책임소재	책임질 사람(기관)이 있다.	16(18.4)
검증	검증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2(2.3)

5. 신뢰성

신뢰성의 2항목 중 기원(자)기관이 기재되어 있는 사이트는 97.7%, 지원(자)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사이트는 96.6%로 다수의 사이트에서는 사이트를 책임지는 개인/기관을 명시하고 있었다[표 7].

표 7. 신뢰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신뢰성	평가 기준	f(%)
지원기관(자)	기재되어 있다.	85(97.7)
지원기관(자) 연락처	명시되어 있다.	84(96.6)

6. 용이성

모든 평가대상 사이트는 홈페이지 상에서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맵 또는 개요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색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80.5%에 그쳤다[표 8].

표 8. 용이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용이성	평가 기준	f(%)
위치표시	현재 위치를 표시해준다.	87(100)
내용소개	사이트 맵 또는 개요가 소개되어 있다.	87(100)
검색기능	검색기능이 있다.	70(80.5)

7. 권위성

권위성은 최대 2점까지에서 평균 0.35로 영유아 건강관련 사이트는 권위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자의 연락처가 표시된 경우는 9.2%였고 저자가 표시된 경우도 59.8%에 불과하였다[표 9].

표 9. 권위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권위성	평가 기준	f(%)
저자여부	저자가 표시되어 있다.	52(59.8)
저자 연락처	저자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다.	8(9.2)

8. 환류성

환류성에 있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 사이트가 96.6%였으며, Q&A에 답변을 하는 등의 사용자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는 사이트가 98.9%로 나타나 대부분의 영유아 건강관리 사이트는 환류성에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환류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환류성	평가 기준	f(%)
기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 있다.	84(96.6)
업무처리	사용자 의견을 처리해주고 있다.	86(98.9)

9. 지속성

지속성은 최대 3점까지에서 평균 1.67로 과반수 정도만이 지속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 항목 중에서 최종갱신일이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는 4.6%였으며 처음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69.0%, 외부링크 사이트가 최근 것으로 접근에 문제가 없었던 사이트가 95.4%였다[표 11].

표 11. 지속성 평가 충족 사이트 빈도

지속성	평가 기준	f(%)
외부링크	최근 것으로 접근에 문제가 없다.	83(95.4)
처음제작일	처음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60(69.0)
최종갱신일	최종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4(4.6)

IV. 논의

검색된 87개의 영유아 건강관련 사이트는 32점 만점에 11~29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평균 20.40±4.88, 즉 32개의 평가 기준에서 평균 20개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별로 살펴봤을 때, '홈페이지 상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시해준다.' 와 '사이트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사이트맵 또는 개요 등).'의 항목은 100% 충족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사이트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재되어 있다.'가 97.7%, 그리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 있다.' '사이트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다(혹은 알 수 있다).' '사이트의 지원, 책임의무가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다.'가 96.6%로 많았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으며 검증자와 절차 또한 기술되어 있다.'는 항목은 2곳(2.3%), '사이트의 최종갱신일자가 표시되어 있다.'는 4곳(4.6%)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에서는 정확성이 평균 0.24점으로 가장 낮아서 영유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정보출처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권위성에 있어서도 0.35점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내용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대다수 영유아 건강관련 사이트의 정보가 육아와 보육에 관한 영유아 건강전문가에 의해 제공·운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정보제공자에 대해서 표시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내용의 정확성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영유아 건강관련 사이트는 정확성과 권위성이 낮아서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집단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6]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또한 내용성(평균 0.52점)이나 지속성(평균 0.56점)등은 절반이하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영유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내용이나 정확성 등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과정에서 검색된 사이트를 보면 보육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영유아 건강정보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 상 무한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제한 없이 무작위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웹사이트의 건강정보는 심도 있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이용하는 건강정보 사이트 상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남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유도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 최근 전문가에 의해 대두되고 있다[14]. 하루 일과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유아들은 건강전문가가 상주해 있지 않은 시설에서 전적으로 보육교사에 의해 돌봄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기는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건강에 매우 취약한 시기로서 여러 가지 건강위험요소에 노출되기 쉽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보다 호흡기, 소화기 감염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21]. 따라서 더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4]. 이에 대한 보완 대체로 영유아를 돌볼 때 필요한 다양한 건강정보 웹사이트가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유아 돌봄과 건강관리에 있어 보육교사의 역할이 큰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프로젝트로 설립된 Child Care Health Linkages Project는 보육교사에게 다양한 건강정보와 매체 그리고 건강 상담과 Hot

online을 설립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22]. 이는 단순한 보육교사 지원체로서 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을 위한 취지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생의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생한 아동도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현재 국내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웹사이트 평가를 시도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 건강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87개를 검색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각 사이트를 평가하였다. 9개 항목, 3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서 각 문항에 충족하면 1점 충족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여 총 32점이 된다. 평가는 2명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평가 결과 검색된 87개의 영유아 건강관련 사이트는 32점 만점에 11~29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하부 항목에서는 정확성과 권위성이 가장 낮았고 내용성, 지속성 등도 약 절반가량의 사이트에서만 충족하고 있었다. 각 사이트는 평균 20.39로 32점 만점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영유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유아를 집단으로 돌보는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건강정보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건강정보제공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http://www.mogef.go.kr

[2] American Pediatrics &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aring for our children. National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s standards: guidelines for out-of-home child care programs(2nd ed),* Washington DC:Author, 2002.

[3] 엄옥주, *유아교육기관의 건강관리 및 건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김지수,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보육교사의 요구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김일옥, 김미예, "영유아보육법의 간호학적 고찰", 아동간호학회지, 제10권, 제3호, pp.361-366, 2004.

[6] 김혜영, *일부 예비보육교사들에 대한 건강지식실천에 관한 실태연구*, 동덕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박현애, 민열하, 류동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장애인을 위한 건강정보 웹사이트 개발",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9권, 제2호, pp.121-130, 2003.

[8] F. A. Sonnenberg, "Opportunities and pitfalls [editorial]," Arch Intern Med, Vol.157, pp.151-152, 1997.

[9] J. C. Wyatt,"Commentary: measuring quality and impact of the world wide web," BMJ, Vol.314, pp.1879-1881, 1997.

[10] 정부현, *인터넷 웹사이트 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1] 김정은, 김의숙, 고일선, 강석민, "인터넷상의 고혈압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의 평가분석",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9권, 제1호, pp.45-52, 2003.

[12] 유혜라, 장연수, "인터넷 금연정보 사이트 내용평가",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9권, 제4호, pp.431-444, 2003.

[13] 서문경애, 이수자, 장성옥, 이수정, "국내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제35

권, 제3호, pp.631-640, 2005.

[14] 한경자, 김정수, 김숙영, "인터넷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 아동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pp.57-64, 2006.

[15] 유은광, 김명희, 김혜진, 남순열, 정은실, 김영추, 김태경, 윤정아, "국내 인터넷상의 산후관리 웹사이트의 평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2권, 제4호, pp.282-290, 2006.

[16] 김귀주, *국내 인터넷상의 응급처치관련 웹사이트의 평가*,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7] 정영철, 박현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평가체계 개발",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6권, 제1호, pp.53-66, 2000.

[18] T. M. Ball, C. J. Holberg, M B. Aldous, F. D. Martinez, and A. L. Wright, "Influences of Attendance at Day Care on the Common Cold from Birth Through 13 Years of Age", Arch Pediatr Adolesc Med, Vol.156, No.2, pp.121-126, 2002.

[19] S. Hernandez, H. Morales, R. Cuevas, and H. Gallardo, "Risk of Respiratory Illness Associated with Day-care Attendance: a Nation Study," Pediatrics, Vol.87, No.1, pp.62-69, 1999.

[20] Y. Kashiwagi, S. Nemoto, H. Kawashima, K. Takekuma, T. Matsuno, A. Hoshika, and J. Nozaki-Renard, "Cytomegalovirus DNA among Children Attending Two Day-care Centers in Tokyo," Vol.43, No.5, pp.493-495, 2001.

[21] N. Lu, M. E. Samuels, L. Shi, S. L. Baker, S. H. Glover, and J. M. Sanders, "Child Day Care Risk off Common Infectious Disease Revisited," Child Care Health Dev, Vol.30, No.4 pp.361-368, 2004.

[22] http://www.ucsfchildcarehealth.org

저 자 소 개

김 지 수(Ji-Soo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유아 건강관리, 아동간호